

마가복음의 바다평정 이야기(4:35-41)에 대한 그리스-로마적 이해

박경은*

들어가는 말

마가복음의 바다평정 이야기(4:35-41)의¹⁾ 앞뒤만 읽어보아도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의 선교활동은 유대인들만을 상대하고 있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²⁾ 그것은 마가복음의 관심이 이방인들을 향해 있다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³⁾ 그런데 이적 행사자로 나타나는 복음서의 예수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신인(신적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⁴⁾ 이적에 대한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구약성서의 관점에서만 이해되고 있다.⁵⁾ 그 결과 예수의 정체성 문제는 구약성서의 관점에 국한하여 논의된다.⁶⁾ 이에 대해

*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 1) 김득중, 『복음서의 이적해석』 (서울: 컨콜디아사, 1999), 92-98, 120-125. 마가복음의 두 바다 이야기들에 붙인 제목들 참조.
- 2) 김태성, “마가복음의 이방성-이적 설화를 중심으로,” 『대학과선교』 20 (2011), 153-179; 석원식, “지리적 확장을 통한 마가의 이방선교: 막 5:1-20과 7:24-30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11:3 (2004), 629-648.
- 3) 김선옥, “마가복음에 나온 바다의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 『신약연구』 16:2 (2017), 38-69; 소기천,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방인 선교,” 『장신논단』 16 (2000), 175-192.
- 4) A. Y. Collins, “Mark and His Readers: The Son of God among Greeks and Romans,” *HTR* 93 (2000), 85-100. 헬라이어 ‘하나님의 아들’은 ‘제우스의 아들’, 혹은 ‘아폴로의 아들’로 들렸을 것이라는 견해 참조.
- 5) 조태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기적이야기를 통해 본 예수운동,” 『기독교사상』 39:4 (1995), 112-131.

본 연구는 이방인을 향한 마가복음 저자의 ‘예수 알리기’를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먼저 그 타당성을 제기한 후에 마가복음 저자가 “어떤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적이야기에 대한 그리스-로마적 관점의 해석이 필요한 이유

마가복음 저자가 활동하던 때는 1세기 중후반대로서 헬레니즘 문화가 일상적으로 오래 전부터 보편화되었던 시대였다.⁷⁾ 더구나 마가복음의 저술 지역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저술장소는 팔레스틴 밖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저자가 상대하는 유대인들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생활했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못지않게 그리스-로마신화에 매우 익숙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⁸⁾ 특히 마가복음 저자는 팔레스틴 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⁹⁾ 마가복음을 구약성서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게 된다.¹⁰⁾ 그런데 본문을 비롯한 복음서들의 이적이야기들은 한결같이 구약성서의 관점에서만 해석되므로 저자가 상대하는 청중들, 혹은 독자들은 모두 구약성서나 유대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전제하는 듯이 여겨진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

6) 박운만, “예수의 두 얼굴-마가복음의 고기독론 연구,” 『신약연구』 16:1 (2017), 35-69; 박수암, “마가의 기독교론,” 『교회와신학』 20 (1988), 74-102. 30년 간격의 두 논문을 통해서 보는 기독교론 연구의 차이 참조.

7) M. 행엔, “유대교와 헬레니즘,” 박정수 역, 『신약논단』 17:3 (2010), 829-862.

8) 박찬웅,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교와 원시 기독교-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논의,” 『신약논단』 15:4 (2008), 861-894.

9) 유태엽, “마가공동체의 삶의 정황에 대한 물음,” 『신학과세계』 77 (2013), 32-64.

10) G. V. Oyen, “Markan Miracle Stories in Historical Jesus Research, Redaction Criticism and Narrative Analysis,” M. Labahn, B.J.L. Peerbolte, eds., *Wonders Never Cease: The Purpose of Narrative Miracle Stories in the New Testament and Its Religious Environment* (London: New York: T&T Clark, 2006), 89.

을 고려할 때 그렇게 볼 수 없다.¹¹⁾ 바로 이 지점에서 본문의 이적 이야기는 구약성서의 맥락과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들의 타당성을 기술한다.

1.1. 저술시기와 저술장소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갖고 읽는 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술시기와 저술장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주후 70년경에 지중해권역 안에서 기록되었다고 종합할 수 있다.¹²⁾ 그것은 마가복음의 배경이 헬레니즘의 문화권 안에 놓여 있음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게 한다.¹³⁾ 그러므로 마가복음 저자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방인들의 생활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의식해야 한다.¹⁴⁾ 그것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의 대상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헬라화 된 유대인들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¹⁵⁾ 그에 따라 마가복음은 구약성서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¹⁶⁾

-
- 11) C. L. 블롬버그, 『예수와 복음서』, 김경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71. 도표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상당한 정도의 구약적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제공한다.
 - 12) 유태엽, “이적설화의 역사성과 기능에 관한 소고-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신학과세계』 90 (2017), 7-44.
 - 13) M. 행엘, “유대교와 헬레니즘,” 829-862.
 - 14) 민주홍, “로마제국의 경제적 통치방식과 마가공동체의 정황,” 『신약논단』 21:1 (2014), 59-90; 유태엽, “마가공동체의 삶의 정황에 대한 물음,” 32-64도 참조.
 - 15) E. 로제, 『신약성서 배경사』, 박창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2), 148-154.
 - 16) 서용원,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 연구,” 『신약논단』 9:1 (2002), 1-38.

1.2.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읽는 복음서

마가복음 저자가 상대하던 복음의 대상자들은 구약성서 지식이 많지 않았거나 정통하지 않았던 일반대중들이었다.¹⁷⁾ 그러므로 마가복음 저자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일반대중을 상대로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 분명하다.¹⁸⁾ 따라서 마가복음 저자가 상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성서에 대해 매우 정통한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리라는 시각을 갖고 마가복음을 읽어야 한다.¹⁹⁾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헬레니즘의 아리탈로지 맥락에서 예수의 이적을 보아야 한다는²⁰⁾ 학자들조차도 이적의 주체인 예수를 구약성서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뿐²¹⁾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이적본문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면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 기술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유대교는 1세기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 내의 유일종교도 아니었고 헬레니즘을 변형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지니고 있지도 못했다.²²⁾ 그것은 유대교가 헬레니즘에 비해 훨씬 힘이 약했음을 나타낸다.²³⁾ 그리고 당시에 성행했던 유대교의 묵시문학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것은 유대교를

17) 조병수, “마가복음의 오콜로스에 대한 고찰,” 『신약신학저널』 2:1 (2001), 24-46; 박태식, “마가복음의 오콜로스,” 『신약논단』 2 (1996), 42-63; 성중현, “오콜로스: 예수를 따르던 무리,” 『기독교사상』 33:8 (1989), 216-222.

18) C. A. 에반스, 『마가복음 8:27-16:20』, WBC 34-하,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2), 119.

19) Y. 아하로니 외 4인 공저, 『아가페 카르타 성서지도』, 신대현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2013), 185; E. 로제, 『신약성서배경사』, 138면 이하의 내용도 참조.

20) M. Smith, “Prolegomena, to a Discussion of Aretologies, Divine Men, the Gospels and Jesus,” *JBL* 90 (1971), 174-199.

21) P. J. Achtemeier, “Person and Deed: Jesus and the Storm-Tossed Sea,” *Int* 16 (1962), 169-176. 바다를 하나님의 적대세력으로 보는 구약성서 구절을 참조.

22) M. 행엘, “유대교와 헬레니즘,” 829-862.

23) G. 타이센, A. 메르츠, 『역사적 예수』, 재판, 손성현 역 (서울: 다산글방, 2002), 197-230 참조. 유대인들의 반-헬레니즘 운동은 유대교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약세였음을 인정하게 한다.

둘러싼 헬레니즘의 종교문화 지대가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알게 해 준다.²⁴⁾ 그런 상황 속에서 헬레니즘에 익숙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만큼 유대교나 구약성서에 익숙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무리이다.²⁵⁾ 마가복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1:1)”라고 기록되었는데²⁶⁾ 복음서의 대상자들 중에는 그 표현을 구약성서의 반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헬라적으로 받게 될 친-헬레니즘의 사람들이 다수였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²⁷⁾ 더구나 구약성서에 친숙한 자들은 예수에 대해 그만큼 더 적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²⁸⁾ 마가복음을 구약성서의 관점에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마가복음의 이방지향성 성격에 적절하지 않다.²⁹⁾ 그런데 헬레니즘의 아리탈로지 문학의 관점에서 예수를 신적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³⁰⁾ 구약성서의 관점에 따른 해석들만 읽게 된다.³¹⁾

-
- 24) 이진성, 『그리스 신화의 이해』, 개정판 (서울: 아카넷, 2010), 67. 네로가 포세이돈의 청동상을 소장하고 있었을 정도로 헬레니즘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 25) 천사무엘, 『신구약 중간시대의 성서해석: 예수 시대 전후의 유대교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98-103; 김창선, 『유대교와 헬레니즘: 신약성서 배경연구』 (서울: 한국성서학, 2011), 89-104. 헬레니즘 문화권 내에서 기록된 칠십인역 성서에 당시의 시대적 요소들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견해 참조.
- 26) G. J. 웬함, 『창세기 1-15』, WBC 1,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2001), 102.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이 구약성서의 야웨 하나님인지, 아니면 엘/엘로힘 하나님인지에 대해 참조.
- 27) 이진성, 『그리스 신화의 이해』, 241.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종교적 성향이 얼마만큼 헬라화에서 자유로웠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선, 『유대교와 헬레니즘: 신약성서 배경연구』, 227-247의 ‘헬레니즘 시대의 대중신앙과 밀의 종교’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28) 박수암, “마가복음에서의 반-성전 주제,” 『교회와신학』 28 (1996), 164-190.
- 29) C. L. 블룸버그, 『예수와 복음서』, 84-85. 유대인 대다수는 암하레즈로서 하층평민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일상의 그리스-로마문화에 익숙했을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다.
- 30) J. D. Kingsbury, “The ‘Divine Man’ as the key to Mark’s Christology- The End of an Era,” *Int* 35 (1981), 243-257; 예수를 그리스-로마의 아리탈로지 관점에서 보고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김득중, 『복음서의 이적 해석』, 61-64도 참조.
- 31) E. Eve, *The Jewish Context of Jesus’ miracles* (London, 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377, 382-383.

예수 당시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더 이상 헬레니즘화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폭넓게 그리스-로마적인 삶의 상태가 진행된 상황이었다.³²⁾ 거기에 더하여 마가복음의 예수는 반-유대적으로 그려진다.³³⁾ 심지어 마가복음의 예수께서는 ‘바다’라고 표현된 갈릴리호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유롭게 건너다니면서 이방지역임을 의식할 수 없는 갈릴리호수 근방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셨다.³⁴⁾ 따라서 마가복음의 대상자들을 팔레스틴의 유대인들로 제한하지 않는 한 본문을 해석한 내용 안에는 그리스-로마적 시각도 충분히 나타나야 한다.³⁵⁾ 그리스-로마적 시각을 갖고 본문을 이해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가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³⁶⁾ 오히려 그리스-로마신화에 익숙한 헬레니즘 문화권 속의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의 이적이야기들을 접했을 때 이적 행사자로 나타나는 예수를 어떻게 인식했었으며,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를 어떻게 구별시켜 독자적인 존재로 차별화시키려고 했는지를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구약성서적인 사고의 폭을 넘어 좀 더 확장된 이해를 갖게 되어 마가복음 저자가 그리스-로마시대에 헬라어로 전한 예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2) E. 로제, 『신약성서 배경사』, 25. 할례에 대해 부끄러워할 만큼 헬레니즘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33) 서중석, “마가복음서의 예수-대결적 국외자,” 『현대와신학』 25 (2000), 26-49.

34) 석원식, “지리적 확장을 통한 마가의 이방선교,” 629-648.

35) 왕대일, “유대신앙과 헬라문화, 그 만남과 갈등-희생제물의 경우,” *Canon&Culture* 3:1 (2009), 67-95. 유대인들과 헬라문화의 상호관계에 대해 참조. 종교와 문화의 문제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마가복음의 저술장소를 팔레스틴 북부지역인 시리아나 혹은 로마로 볼 경우 마가복음에 반-헬레니즘적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적이야기를 그리스-로마적 관점으로 읽는 것에 무리가 없음을 전제하게 한다.

36) P. J. Achtemeier, “Gospel Miracle Tradition and the Divine Man,” *Int* 26 (1972), 174-197.

1.3. 교회공동체의 와해 또는 해체위기의 상황에 놓인 저자의 입장에서 읽는 복음서

성서비평학적 관점에 따르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종교문학가라고 칭해질 수 있다.³⁷⁾ 그러나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와 장소를 전방위적으로 고려해 볼 경우 마가복음 저자는 교회공동체의 운명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던 선교지향적-목회지도자였다고 이해될 수 있다.³⁸⁾ 저자는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갈릴리를 배경삼아 전개되는 예수의 선교사역을 통해서도 이방지향성을 표명한 것이 분명하다.³⁹⁾ 특히 막13장에서도 알 수 있는 대로 배교자들의 교회이탈 현상은 교인수 감소와 직결되는 시안이므로 마가복음 저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따라서 마가복음 저자는 교인수 감소현상을 경험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입장도 고찰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가복음 13장에 대한 연구논문들은 대부분 마가복음에 대해 ‘고난극복을 위한 이적의 책’이라고 마무리한다.⁴⁰⁾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고난 외에도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인이탈 현상, 그에 따른 교인수 감소현상은 교회 공동체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마가복음 저자에게 대단한 고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⁴¹⁾ 그러므로 교인들의 집단적 교회이탈로 인해 발생하는 교회 공동체의 와해, 또는 해체위기 앞에서 ‘예수

37) S. 헤이네스, S. 매켄지,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김수규, 김수남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8-32.

38) C. L. 블룸버그, 『예수와 복음서』, 201. 마가복음의 저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저술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적분문들을 구약성서의 관점에서만 주석하는 한계를 보인다(93,98 참조).

39) C. L. 블룸버그, 『예수와 복음서』, 98. 갈릴리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더 많이 살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비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시각은 옳다.

40) 최문홍, “공관복음서의 ‘이적’의 신학적 의미에 대한 고찰,” 『교수논총』 6 (1995), 143-160, 이영호, “마가복음 해석에 대한 연구,” 『교수논총』 8 (1996), 117-140.

41) 김득중, 『복음서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1985), 13-14.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예수의 역사적 상황에서가 아니라 복음서가 기록되던 저자의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견해는 매우 타당하다.

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일선 목회자의 고통스런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마가복음 저자가 이방세계를 향해 전하려는 예수가 “어떤 예수”였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⁴²⁾

2. 바다평정 이야기에 대한 그리스-로마적 이해

그리스-로마적인 관점에서 이적이야기 속의 예수는 부인할 수 없게도 이적을 행하는 신적 존재이다.⁴³⁾ 하지만 본문에 대한 주석적 이해에서 그리스-로마적 관점으로 예수를 기술하고 그에 따라 내용을 해석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⁴⁴⁾ 복음서의 독자들 및 귀를 통해 예수를 소개받았을 대부분의 청중들은⁴⁵⁾ 복음서의 서두에서 이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소개받았으므로 쉽게 구약성서의 관점과 연결시킬 수 있으리라고 전제하는 것 같다.⁴⁶⁾ 그러나 구약성서의 관점만이 아니라 그리스-로마적인 관점으로도 본문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⁴⁷⁾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지중

42) G. V. Oyen, “Markan Miracle Stories in Historical Jesus Research, Redaction Criticism and Narrative Analysis,” 89; P. J. Achtemeier, “Gospel Miracle Tradition and the Divine Man,” 174-197. 마가복음 저자가 제시하는 예수의 모습은 구약성서적이라기 보다는 헬레니즘적이라는 견해 참조.

43) G. Theissen, *The Miracle Stories of the early Christian Tradition*, F. McDonagh, trans., J. Riches, e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215. 마가복음의 현재 형태로 된 기적 이야기들의 구성은 ‘Aretological gospel composition’이라고 칭해진다 (98, 220의 내용도 참조).

44) G. 스탠턴, 『복음서와 예수』, 김동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60. 복음서의 예수는 그리스-로마적인 신적 영웅으로 그려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쿰란 공동체의 증거를 바탕으로 그리스-로마적 배경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 참조.

45) J. Dewey, “The Survival of Mark’s Gospel: a good story,” *JBL* 123:3 (2004), 495-507; C. L. 블룸버그, 『예수와 복음서』, 71. 당시의 문맹률 참조.

46) R. 슈낙켄부르크,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김병학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9), 71, 97. 주요 어휘들과 연관시켜 진술되는 구약성서적 이해 참조.

47) S. 콜로빈, M. 엘리야데, J. 캠벨, 『세계 신화이야기』, 이기숙, 김이섭 공역 (서울: 가치, 2001), 17-30; L. K. 뒤프레,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권수경 역 (서울: 성광사,

해지역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매우 익숙했었을 그리스-로마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읽으면 내용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⁴⁸⁾ 그에 따라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본문을 읽으면 41절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⁴⁹⁾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⁵⁰⁾ 각각 정리할 수 있다.

2.1. ‘날 저물 때’ 바다를 횡단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로마적 이해(35절)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예수와 그 일행이 왜 ‘날이 저물 때’ 바다를 건너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⁵¹⁾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하루가 마감된다는 인상을 주지만 그에 맞지 않게 예수와 그 일행은 바다를 건너려고 하기 때문에 하루 행적의 마감을 예상하게 하는 표현으로 이해되기가 어렵다.⁵²⁾ 다만 바다를 건너 ‘저 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예수와 그 제자들의 이방지역에 대한 선교사역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왜 하필 ‘날이 저물 때’ 바다를 건너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리스-로마적 관점에 의하면 뜻밖의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1996), 165-175, 197-199. 복음서들의 이적이야기들을 그리스-로마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신화학자들의 긍정적인 입장 참조.

48) 이진경, “마가복음 1:1에 나타난 두 개의 기독교론 칭호 연구- 두 세계를 위한 두 개의 기독교론 칭호, 「신약논단」 20:2 (2013), 267-307.

49) E. S. Malbon, “The Jesus of Mark and the Sea of Galilee,” *JBL* 103:3 (1984), 363-377.

50) J. N. 폴마이어,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 실종된 예수를 되찾는 길』, 한성수 역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원, 2012) 133-137. 헬라이어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θεός)’을 야웨 하나님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G. J. 웬함, 『창세기 1-15』, 102도 참조.

51) R. T. 프란스, 『NIGTC 마가복음』, 이종만 외 2인 공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370.

52) 김선욱, “마가복음에 나온 바다의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 38-69. 갈릴리 ‘호수’를 왜 ‘바다’라고 칭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참조.

그리스로마적 관점에 따르면 바다는 포세이돈의 지배영역이다.⁵³⁾ 그러므로 날이 저물 때 바다를 건너는 것은 포세이돈의 격노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더구나 포세이돈은 바다 이외의 대지 관할권 다툼에서 번번이 패한 전력을 갖고 있다.⁵⁴⁾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바다를 갈로질러 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포세이돈의 지배지에 대한 무단침범으로 간주되기에 안성맞춤이다. 따라서 ‘날이 저물 때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의 지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집단을 이루어 포세이돈의 영역을 무단 횡단하여 포세이돈의 관할지를 접수하겠다는 그림이 그려지므로 포세이돈의 화를 자초한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⁵⁵⁾

고난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토록 험겨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그런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결코 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난을 가치는 박해자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핍박을 가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이방지역을 향해 대낮도 아닌, 저물 때에 때를 이루어 무단으로 바다를 횡단하여 이방 땅에 들어가는 것은 포세이돈의 화를 자초하는 원인에 해당한다. 이방지역을 향한 선교사역에 대해 유대인들만 적대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2.2.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다른 배들’에 대한 그리스-로마적 이해(36절~37절)

구약성서의 관점에 의하면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다.⁵⁶⁾ 뿐만 아니라 악의

53) P. 그리말, 『그리스·로마신화 사전』, 최애리 외 3인 역 (서울: 열린책들, 2004), 593-596. 이외에 그리스-로마신화 관련 여러 서적들의 ‘포세이돈’ 항목 참조.

54) P. 프리만, 『지금 시작하는 그리스로마신화』, 공민희 역(과주: 21세기북스, 2014), 67. 포세이돈의 패배에 대해서 김성대, 『그리스로마신화』, 95도 참조.

55) S. L. 해리스, G. 플래츠너, 『신화의 미로 찾기 I』, 이영순 역 (서울: 동인, 2001), 166. 바다를 항해하거나 바다를 이용하는 자들과 포세이돈과의 관계에 대해 김성대 편저, 『그리스-로마신화』 (서울: 삼양미디어, 2012), 94도 참조.

세력이며 악령의 거주지이기도 하다.⁵⁷⁾ 바다에 대한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악과 격투한다고 생각하였다.⁵⁸⁾ 그러므로 바다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악의 세력을 정벌하신 분으로 그려지게 된다.⁵⁹⁾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별로 크지 않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 중이다.⁶⁰⁾ 그때 ‘다른 배들’도 함께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다. 그런데 같이 따라갔던 ‘다른 배들’에 대해서는 이후로 더 이상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고난의 상징으로 이해되는 격한 풍랑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큰 불행을 당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⁶¹⁾ 하지만 ‘다른 배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중요성을 주지 않은 채 간과되기도 한다.⁶²⁾

이와 같은 시각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포세이돈의 관할 영역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다른 배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그림으로 연결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리스-로마적 관점에 의하면 바다의 거친 풍랑은 포세이돈이 화가 났다는 표상이다.⁶³⁾ 그러므로 성격이 거칠며 화를

56) E. K. Broadhead, *Teaching with authority: Miracles and Christology in the Gospel of Mark* (Sheffield: JSOT Press, 1992), 95-96.

57) J. R. Donahue, D. J. Harrington, *The Gospel of Mark*, Sacra Pagina Series, vol.2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2), 158-159.

58) D. 갬런드, 『마가복음』, NIV 적용주석, 채천석, 정일오 공역 (서울: 솔로몬, 2011), 236, 239-240.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혼돈과 악의 장소인 바다를 다스리는 지배권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다는 기술 참조.

59) P. J. Achtemeier, “The Origin and Function of the pre-Markan Miracle Catenae,” *JBL* 91 (1972), 198-221. 헬레니즘의 그리스-로마적 입장에 따르면 세라피우스는 복음서의 예수처럼 바다에서 구원행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구약성서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제한된 이해이다.

60) R.H. Stein, *Mark*(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242. 예수활동 당시의 갈릴리 어부들이 탔던 배(막1:16-20)들의 대략적인 크기와 관련하여 J. 마커스 『앵커 바이블 마가복음 I. 1장-8장』, 류호영, 장성민 공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CLC, 2016), 548도 참조.

61) R. 굴리히, 『마가복음 1-8:26』, WBC 34-상,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1), 437.

62) R. T. 프란스, 『NIGTC 마가복음』, 372-373. ‘다른 배들’에 대한 주석적 이해 참조.

63) E. 헤밀턴, 『그리스-로마신화』, 서미석 역 (고양: 현대지성사, 2003), 36.

잘 내는 포세이돈이 자기의 관할영역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범하는 자들에 대해 거대한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면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예수와 그 일행은 바다를 횡단하는 중에 포세이돈의 분노와 마주치게 된 형국이다.⁶⁴⁾ 포세이돈의 성격으로 볼 때 자신의 영역을 허락 없이, 그것도 저물 때에 집단으로 횡단하는 행위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염려하던 일이 곧 발생했다.

여기서 ‘다른 배들’이 이후로 언급되지 않는 이유를 마가복음 교회 공동체의 현재적 상태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이후로 언급이 없는 ‘다른 배들’은 마가복음 저자가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를 “집단적으로 떠나버린”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된 견해와는 달리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바다에 대한 또 다른 관점에 의하면 바다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시107:25-30; 147:18; 잠30:4; 욥28:25; 암4:13; 나1:3). 하나님께서는 포호하며 넘실대는 무시무시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신다(시33:7; 65:7; 77:16; 욥12:15). 그렇게 바다를 제어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따라간 ‘다른 배들’을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⁶⁵⁾ 그러므로 ‘다른 배들’이 이후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마가복음 저자가 몸담고 있던 교회 공동체를 집단적으로 이탈한 유대인들로 이해함으로 마가복음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교회해체, 혹은 교회의 와해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한편 그리스-로마적 시각에서 포세이돈은 자신을 화나게 만들면 거친 바람과 거센 풍랑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관할지를 무단으로 횡단한다고 해서 모두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무지막지한 신은

64) 반덕진, 『신화로 보는 세상: 그리스 신화와 문학』 (서울: 신광출판사, 2000), 125. 올림포스의 제 2의 신이었던 아폴론도 포세이돈과의 정면대결을 회피했다.

65) W. L.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1974), 173. 바다는 죽음의 영역을 상징하므로 배들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침몰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반드시 그렇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니다.⁶⁶⁾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들’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없는 것을 순교와 관련시켜 집단적인 죽음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⁶⁷⁾ 그와는 다르게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인상에 근거하여 마가복음 저자가 일선에서 이끌고 있던 교회공동체 내의 급작스런 교인감소 상황을 추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막13장의 내용을 통해 마가복음 저자가 처해 있던 위기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저자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의 교인들 중에 이방선교와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교회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유대-그리스도인들이었으리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 이방지역으로 건너가 거기서 예수를 증언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어떤 괴로움이 가해지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한꺼번에 교회 공동체를 이탈했을 수 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상대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 자체가 박해를 자초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선교지향적인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일은 어떤 박해나 고난보다 더 심각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공동체의 와해상황이나 해체위기가 현실적으로 실감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2.3. 바다폭풍에 이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에 대한 그리스-로마적 이해(38절)

구약성서의 관점에 따른 해석에 의하면 ‘주무시는 예수’는 요나를 연상시

66) 반덕진, 『신화로 보는 세상 그리스 신화와 문학』, 125-138; 이진성, 『그리스신화의 이해』, 67. 헬레니즘의 시대 때에 바다에 생활 근거를 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자비로운 포세이돈’에 대해 참조.

67) B. M. F. van Iersel, *Mark, A Reader-Response Commentary*, W. H. Bisscheroux, tra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Ltd. 1988), 194. 이후로 언급이 없는 ‘다른 배들’에 대한 언급은 파선이나 죽음을 생각하게 함으로서 위기의 극적상황을 강조적으로 나타내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견해 참조.

킨다고 설명된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요나의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마식 도로들이 팔레스틴 지역에만 수백 킬로미터씩 건설되었던 1세기 후반기에⁶⁸⁾ 이방성향의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저자가 언급도 하지 않은 구약성서의 요나를 떠올렸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구약성서적 해석이다. 이 대목에서 요나를 떠올리게 된다면 그것은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마태복음 저자는 격한 풍랑 속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배 안에서 잠지는 두 인물을 비교하지 않았다. 요나의 ‘밤낮 사흘’과 예수의 ‘삼일 만의 부활’을 연관시켜 말했을 뿐이다(마12:39-40).

물론 구약성서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마가복음의 대상자들은 이 대목에 이르러 풍랑이 격하게 일고 있는 중에도 배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잠자던 요나와 예수의 모습을 서로 비교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유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로마적인 헬레니즘의 이방인들도 구약의 요나와 예수를 연관 시키면서 ‘잠지는 두 인물’을 비교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⁶⁹⁾ 그러므로 이방지향성이 농후한 마가복음의 독자들이나 청중들은 이 대목에서 잠자고 계신 예수와 그 일행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에 관해 더 큰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리라고 여겨진다. 예수와 그 일행이 포세이돈의 격노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매우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포세이돈을 잔뜩 화나게 만든 당사자인 예수께서는 배 안에서 태연히 주무시고 계신 중이므로 이 대목에 이른 헬레니즘의 그리스-로마적인 독자나 청중들은 격노한 포세이돈과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비교하면서 그 두 인물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68) A. F. 레이니, R. S. 나들, 『성경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강성열 역 (서울: 이레서원, 2013), 448-449. 유대인의 집들에서도 이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타날 정도였다는 기술 참조. 유대인들이 받았을 헬레니즘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방지향성의 복음서에 대한 이해는 좁을 수밖에 없다.

69) J. 그닐카, 『마르코복음 I』,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6), 249.

격한 바람과 풍랑 속에서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⁷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냐’면서 잠자고 계신 예수를 깨운다. 일반적으로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용어로 생각되기 때문에⁷¹⁾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에 위기를 느낀 제자들이 예수를 깨운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오느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는 힐난성 기조이다.’⁷²⁾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독자나 청중들은 ‘선생’ 예수가 포세이돈의 분노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잠을 자고 계신 것인지 몹시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무시는 예수를 ‘선생’으로 불러대며 그를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과연 포세이돈의 분노의 한복판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에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⁷³⁾ 예수는 앞서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보이시긴 했으나(막1:25~26) 제자들에게는 ‘선생’일 뿐인데 그 ‘선생’과 제자들이 모두 포세이돈의 격노 앞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7절의 바다에 대한 묘사와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께 가서 했던 말은 배가 침몰 직전의 극한 위기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상황임을 암시하는데 그에 반하여 ‘선생’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다. 포세이돈의 격한 분노와 ‘선생’ 예수의 주무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대조되어 부각되는 부분이다.⁷⁴⁾

70) T. Dwyer, *The Motif of Wonder in the Gospel of Mar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37-38.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로마의 종교적 ‘선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 참조.

71) 반덕진, 『신화로 보는 세상』, 138.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로 나타낸 마가복음 저자의 심층에는 기원전 5세기경에 에게해를 향해 세워진 웅장한 포세이돈 신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72) R. 풀리히, 『마가복음 1-8:26』, 438.

73) E. 해밀턴, 『그리스·로마신화』, 36; L. G. 해리스, G. 플래츠너, 『신화의 미로 찾기 I』, 166. 포세이돈의 분노에 대해 참조.

74) J. 마커스, 『앵커바이블 마가복음 I, 1장-8장』, 류호영, 장성민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CLC, 2016), 551. 편안히 잠을 자는 것에 대한 구약성서적 이해 참조(시 3:5; 4:8; 잠 3:24).

2.4. 말씀으로 바다를 평정하신 ‘선생’ 예수에 대한 그리스-로마적 이해(39절)

제자들에게 의해 잠이 깬 ‘선생’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⁷⁵⁾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이 ‘고요하라’, ‘잠잠하라’인데 그것이 명령형이다. 대체로 ‘꾸짖었다’는 단어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야단을 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화가 난 표정을 떠올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구약성서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로마신화의 포세이돈을 비롯한 많은 신들은 인간에 대해 우호적으로 묘사된다.⁷⁶⁾ 그러나 화가 났을 때에는 대부분 전투적이고 폭압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바람을 꾸짖는 예수의 모습에서는 그런 회화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거대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예수의 모습에서 ‘선생’ 예수와 ‘바다의 지배자’ 포세이돈이 서로 싸우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에 나타나는 ‘선생’ 예수는 다만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려질 뿐이다. 여기에 마가복음 저자의 문학적 전략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런저런 고난을 가하는 쪽은 전투적이며 폭압적이다. 그에 비해 예수는 전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시다. 다만 위협을 가하는 상대를 꾸짖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선생’이실 뿐이다. ‘가르침’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자연을 악의 세력으로만 국한해서 보는 구약성서적 이해의 한계를 보게 된다. 구약성서의 관점에 따르면 마가복음의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은 구약성서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일이다.⁷⁷⁾ 그러나 그것은 바람과 바다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된 부분만 바라본 결과이다. 구약성서의 또 다른 본문에 의하면 바람과 바다가 인간에게

75) R. 쿨리히, 『마가복음』, 138, 439의 용어설명 참조.

76) P. 프리만, 『지금 시작하는 그리스-로마신화』, 65-66.

77) B. Blackburn, *Theios aner and the Markan Miracle tradition: A Critique of the Theios Aner Concept as an Interpretative Background of the Miracle Traditions used by Mark* (Tübingen: J.C.B. Mohr, 1991), 142-143.

위험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⁷⁸⁾ 구약성서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도구이다.⁷⁹⁾ 바다는 하나님의 지배영역이다.⁸⁰⁾ 구약의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를 제어하실 뿐만이 아니라(시107:28-29) 큰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이게도 하신다(시107:25). 하나님은 필요할 경우 회오리바람과 폭풍으로 길을 만들기도 하신다(나1:3). 뿐만 아니라 바람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사용하시는 이동도구이기도 하다(시104:3-4).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 바람으로 물을 가르고 바닥을 말려 길을 내셨다(시74:13).

이처럼 바다는 바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 물이 줄어들기도 하며(창8:1) 마르기도 한다(출14:21). 물론 구약성서의 또 다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바다를 말리실 때에는 바다를 향해 꾸짖으신다(나1:4).⁸¹⁾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광풍이 발생하기도 하고 바닷물결이 거세게 일기도 한다(시107:25; 렘31:35). 그렇기 때문에 격한 바람과 거친 바다는 반드시 악한 존재나 악의 세력으로 표상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⁸²⁾ 분명하게도 바람은 하나님의 활동도구이며 바다는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구약성서의 증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시89:9 참조).⁸³⁾

그런데 이렇게 바다와 바람에 대한 구약성서의 이중견해를 동시에 제시할 때 즉시 문제가 생긴다.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꾸짖었다는 천인

78) J. S. 스펡, 『만들어진 예수 참사람 예수: 인간의 가슴에 신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계준 역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원, 2009), 125.

79) 이환진, “‘마르헤페트’를 ‘신들의 싸움’ 신화로 읽기: 하나님의 바람이 물 위에 내리쬐다,” 『성경원문연구』 9 (2001), 125-141. 출애굽기에서 바람은 홍해를 말리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흑암 역시 도구였다.

80) G. J. 웬함, 『창세기 1-15』, 104-105. 흑암과 물의 이중적 의미 참조.

81) 막 4:39에서 ‘꾸짖다’의 상대는 바람이다. 그러나 나훔에서는 바다이다. 또 ‘꾸짖다(rebuke)’로 번역된 히브리어(가아르, רָעַר)의 헬라어 단어(ἀπειλέω)는 막 4:39의 헬라어 단어(ἐπιτιμάω)와 다르다.

82) R. T. France, 『NIGTC 마가복음』, 373.

83) E. 해밀턴, 『그리스-로마신화』, 36.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보는 ‘바다 지배자’에 대한 묘사의 비교.

공노할 패륜적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곤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바다를 악령의 세력으로 보는 제한된 시각의 해석만 있는 것인가? 거친 바람과 거세게 이는 바다의 풍랑도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임을 왜 말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 문제는 마가복음의 반-유대적 성향을 나타내는 반-성전 각도에서 해결될 수 있다. 광풍을 일으키고 거센 물결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구약성서의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었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유대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시려 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가복음 저자는 그가 전하는 예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하나님과 격론을 벌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⁸⁴⁾ 마가복음 저자는 그런 속내를 이런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서 마가복음의 독자나 청중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부각시키려고 한 것은 아닐까? 그것은 베드로가 ‘선생’ 예수를 ‘꾸짖었다’고 적은 마가복음 저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⁸⁵⁾ 하지만 이런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본문에 대한 상상력과 그에 따른 해석은 구약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이방지향성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한다.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바다는 포세이돈의 지배영역이며 거친 바람은 그의 등장을 알리는 수단이다.⁸⁶⁾ 포세이돈은 격한 풍랑을 일으킬 때에 힘 좋은 준마들을 대동하고 나타난다. 그것은 포세이돈이 말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진 것과도 관계가 있다. 그런데 포세이돈이 격노했을 때와는 달리 말들과 함께 마차를 몰고 나타나면 숫구치던 파도와 휘몰아치던 바람은 잔잔해지면 서 고요한 평화가 임한다.⁸⁷⁾ 이것은 바다가 포세이돈에 의해 관장되고 있음

84) 그리스-로마신화에서 포세이돈은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다. 반덕진 『신화로 보는 세상 그리스 신화와 문학』, 125이하 참조.

85) 막 8:32-33에서 제자 베드로가 선생 예수를 꾸짖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저자의 입장에서 반-유대, 반-율법주의적인 아들에게 이 단어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86) 이진성, 『그리스신화의 이해』, 232.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폭풍의 원인은 포세이돈이다.

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이유는 예수
의 꾸짖음과 명령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잠잠하다’가 문자적으로 ‘재갈
물리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고려할 때⁸⁸⁾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진 것은
예수께서 포세이돈의 힘 좋은 말들을 말씀으로 재갈 물려 압전하게 만드신
‘선생’이시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본문에서 받는 인상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예수는 바람과 바다의 지배자인 율법주의적인 유대인
들의 하나님과 맞서서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인상이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바다의 지배자인 포세이돈을 ‘선생’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제압하심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위기에서 보호하신다는 ‘가르침’이
다. 이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를 계속 ‘선생’으로
표기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바람과 바다를 ‘악의 세력’으로만 보는
제한된 시각을 벗어나 마가복음 저자의 반-유대적 성향을 염두에 두면서
그의 이방지향성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마가복
음 저자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 “어떤 예수”를 이방세계에 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려는 입장에서는 구약성서의 관점만이 아니라
그리스-로마적 관점도 겸비해야 하기 때문이다.⁸⁹⁾

2.5. 예수의 정체에 대한 그리스-로마적 이해(40절~41절)

마가복음 저자는 바다평정 이야기 본문의 어디에서도 예수의 정체
무엇인지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독자나 청중들은 복음서의 1:1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된 예수의 정체를 인식하고 복음서를 대하게 된다.

87) 김라옥 편저, 『신화의 이해』 (서울: 학이당, 2000), 17-18.

88) R. 굴리히, 『마가복음 1-8:26』, 138. 439.

89) C. A. 에반스, 『마가복음 8:27-16:20』, 89-120 참조.

그리고 8:29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략된 채 ‘그리스도’라고 진술된 베드로의 고백과 만나게 된다. 그러다가 15:39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의 아들’만 나타난 진술과 만난다.⁹⁰⁾ 이것은 ‘그리스도’를 앞에 두어 강조하고 뒤에서 그 정체를 설명하는 형태이다.⁹¹⁾ 이것은 마가복음의 독자나 청중은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를 막론하고 예수의 정체에 대해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단정하여 규정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갖고 바다를 평정시킨 신적 인간의 모습은 구약성서에서 그 유형을 찾아보기 어렵다.⁹²⁾ 뿐만 아니라 감히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꾸짖고 그를 향해 명령형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역시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⁹³⁾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던 수많은 신적 존재들⁹⁴⁾, 심지어 신격화되었던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도 그 비슷한 유형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존재는 어느 문화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의

90) H. Leander, *Discourses of Empire: The Gospel of Mark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3), 87-84, 192-199, 139-144, 285-293.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백부장의 고백에 대한 논의 참조. 어떤 사본에는 막 1:1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참조.

91) 그리스도(1:1)-하나님의 아들(1:1); 그리스도(8:29)-하나님의 아들(15:39)

92) 서용원, “마가의 기독교론에 나타난 생존의 모티브 연구,” 「신약논단」 8:3,4 (2001), 1-14. 마가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약의 메시아인 그리스도와 등치시킬 수 없다. 더구나 마가복음은 예수를 다윗 자손 메시아론과 결부시키길 거부한다 (12:35-37)는 내용 참조.

93) M. 행엘, 『유대교와 헬레니즘 3: 기원전 2세기 중반까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만남 연구』, 박정수 역 (과주: 나남, 2012), 50. 그리스어의 주(κύριος)는 종교적인 의미가 없었으며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신(θεός)은 비인격적이고 불분명한 용어였다는 기술 참조.

94) P. 디엘, 『그리스 신화의 상징성: 인간의 욕망과 그 변형』, 안용철 편역 (서울: 공동체, 1994), 291; 아참나무,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세계의 신화』 (서울: 삼양미디어, 2014), 159; H. C. Kee, “Aretalogy and Gospel,” *JBL* 92:3 (1973), 402-422. 아리탈로지에서 신적 존재들의 일생을 개관해 볼 때 마가복음의 예수를 특정 존재에 일치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대상자들은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어찌 믿음이 없느냐)’고⁹⁵⁾ 질책받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정체성에 관해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지점에 도착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청각교육 방식으로 친히 가르치셨으니 제자들, 그리고 독자나 청중들은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그림이 그려진다.

하지만 마가복음 저자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 예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을 로마황제의 죽음과 비견해서 이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가능하게 한다. 로마의 황제들 역시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신이라고 칭송되었기 때문이다.⁹⁶⁾ 특이한 점은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진술이 십자가에서 숨진 예수의 모습을 보고 말한 고백적 증언이라는 것에 초점이 모아진다는 사실이다.⁹⁷⁾ 분명하게도 마가복음 끝부분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숨진 예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⁹⁸⁾ 이 표현은 전형적으로 헬레니즘적이다.⁹⁹⁾ 그렇기에 마가복음 저자는 헬레니

- 95) 강일상,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206, 213-214. ‘믿음’ 참조.
- 96) A. Y. Collins, “Mark and His Readers: The son of God among Greeks and Romans,” *HTR* 93 (2000), 85-100; C. A. 에반스, 『마가복음 8:27-16:20』, 89-120. 신격화되었던 로마황제들과 연관된 용어들이 마가복음의 그리스도론과 관련되어 사용된 평행적 용례들과의 상관성 참조.
- 97) A. Y. Collins, “Mark and His Readers: The Son of God among Jews,” *HTR* 92 (1999), 393-408; 이진경, “마가복음 1:1에 나타난 두 개의 기독교론 칭호 연구,” 267-307. 백부장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 참조.
- 98) K. McGruden, “Compassionate Soteriology in Hebrews, 1peter and the Gospel of Mark,” *BR* 52 (2007), 41-56; A. Winn, “Resisting Honor: The Markan Secrecy Motif and Roman Political Ideology,” *JBL* 133:3 (2014), 583-601. 그리스-로마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이상적인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마가복음이 그러는 예수의 모습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로마황제의 모습과 겹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 99) M. Smith, “Prolegomena to a Discussion of Aretologies, Divine Men, the Gospels and Jesus,” 174-199; 안진태, 『신화학 강의』 (서울: 열린책들, 2001), 179-181. 예수의 일생은 구약성서의 메시아관에 어울리지 않으나 그리스-로마적 관점에 비추어볼 때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헬레니즘의 신인 영웅신화, 특히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신화에

즘 세계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로마세계의 어떤 신과도 동일시할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신적 존재들과는 차별화되는 인물로 구별시키려고 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마가복음이 증언하는 예수의 정체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양방향 형태로 기술될 수 있다.

2.5.1. 하나님의 아들¹⁰⁰⁾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낯선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예수는 유대인들이 ‘주’로 고백하는 야웨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될 수 없다. 오히려 그 정체성은 우주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인 창세기 1장의 엘/엘로힘의 아들에 가깝다.¹⁰¹⁾ 그러므로 구약성서의 맥락에서 예수의 정체는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 한편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신인존재로서의 예수는 수많은 그리스-로마의 신들 중 특정 신의 아들로 지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로마의 여러 수많은 신들 중에서 마가복음이 전하는 신인존재로서의 예수 같은 특이한 존재를 아들로 둔 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잘 어울린다.

100) J. P. Heil, *The Gospel of Mark as Model for Action, A Reader-Response Commentary* (Eugene, Or: Wipf & Stock Publishers, 2001), 16-17의 ‘하나님의 아들’ 및 그리스도론 관련 어휘들 참조.

101) G. J. 웬함, 『창세기 1-15』, 102. 창조주 엘로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주 하나님 야웨가 아니라는 내용 참조. J.N. 폴마이어,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 133-137의 ‘엘’과 ‘야웨’를 같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될 수 없다는 내용도 참조.

2.5.2. 아들로서의 아들 하나님¹⁰²⁾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낯선 표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아들이 하나님인 ‘아들 하나님’ 존재는 구약성서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야웨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지상에서 활동한 신인존재라는 생각은 발상자체가 불가능하다.¹⁰³⁾ 하지만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들 하나님인 존재는 가능하다.¹⁰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죽음에서 부활한 신인영웅이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심판관으로서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관념은 그리스-로마적인 신 개념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특별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 유대인이나 이방인 누구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 기원후 5세기에 이르러서야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고 정리된 신앙고백의 진술은 자연스런 일이다. 예수의 정체에 대해 마가복음 저자를 비롯하여 신약성서의 저자들 모두, 헬레니즘의 환경 속에서 구약성서적으로나 그리스-로마적으로 쉽고 단순하게 간단히 정리하여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02) A. 요시다 외 11인,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신화 101』, 김수진 역 (서울: 아세아미디어, 2002), 88-89.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제우스 등의 신들은 신들의 아들이지만 신적인간으로 태어난 신이 아니다. 인간존재로 태어난 신적존재는 헤라클레스이다. 그러나 신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난 신적존재로서의 예수는 그리스-로마적인 관점에서도 불가사의한 독특한 존재이다.

103) 그리스-로마신화의 헤라클레스와 사사기의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면에서 흡사하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신의 아들인 신적존재이지만 삼손은 그렇지 않다. 삼손은 조금 다른 인간일 뿐이다.

104) A. 요시다 외,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신화 101』, 88-89의 ‘신들의 탄생’ 관련 내용에 근거하여 예수의 정체성을 우리말로 기술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들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나가는 말

마가복음이 전하는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예고되었던 구약성서의 메시아와 결코 동일시될 수 없다.¹⁰⁵⁾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정치-군사적 인상을 갖는 민족주의적 지도자로서의 인간존재이기 때문이다.¹⁰⁶⁾ 그러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아웨의 아들 예수가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와 닿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마가복음의 증언은 지금도 여전히 자연스럽다.¹⁰⁷⁾

이와는 다르게 마가복음의 예수는 그리스-로마적인 신적 존재의 개념으로 묘사되어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리스-로마신화 안에 나타나는 어떤 신이나 신적 존재들 중에 예수와 일치시킬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¹⁰⁸⁾ 그리스-로마의 그 어떤 신이나 신적 존재도 단 한 번 만에 포세이돈을 제압한 적이 없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제압할 수 있는 신은 오직 제우스뿐이다. 그렇지만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조차도 포세이돈을 단 한 번 만에 무력화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예수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명령형으로 말씀함으로써 광풍의 바다를 평정시키셨는데 그것은 포세이돈을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바다를 제압하신 것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런 회화적인 내용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헬레니즘 문화권 안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몹시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되는

105) 권종선, “마가복음의 서사적 기록론,” 『복음과실천』 27 (2000), 65-101; 서중석, “마가복음서의 예수-대결적 국외자,” 26-49.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견해 참조.

106) 서용원, “마가의 기록론에 나타난 생존의 모티브 연구,” 1-24.

107) 김득중, 『복음서 신학』, 154-162. 마가복음이 전하는 ‘제자들의 무지’ 참조.

108) 홍사석, 『살아있는 지중해 신화와 전설: 그리스 신과 영웅들』 (서울: 해안, 1998), 101-105; P. 디엘, 『그리스 신화의 상징성: 인간의 욕망과 그 변형』, 291-307. 그리스-로마신화에서 말하는 신적 인간(신의 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참조.

유대인 예수께서 지중해의 신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던 포세이돈을 단지 말씀으로 제압하여 바다를 평정하셨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능한 발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41절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라는 의문은¹⁰⁹⁾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로마신화에 대단히 익숙해 있었을 헬레니즘 내의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한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정체성과 관련된 마가복음 저자의 수고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마가복음 저자의 전략적 선교방법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에 따라 마가복음 저자는 구약성서의 관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휘를 통하여 예수의 정체를 스스로 규명해 가도록 인도했으며,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헬라어로 명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통해 예수의 정체를 스스로 규명해 가도록 인도하였음을 보게 된다.

<주제어>

바다평정 이야기, 구약성서의 관점, 헬레니즘, 그리스-로마적 관점, 그리스-로마신화,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서의 하나님

<key words>

The Story of Calming the Storm, The Old Testament viewpoint, Hellenism, Greco-Roman viewpoint, Greco-Roman Mythology, Poseidon the god of the sea. Son of God, God as a Son

* 접수일 2018년 2월 20일, 수정일 2018년 3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8년 3월 31일

109) 개역개정판에서는 ‘그가(οὗτός) 누구이기에...’로 번역되었다. 마치 저 만큼 떨어져 있는 제3자로서의 예수에 대해 궁금히 여기는 것 같은 인상이다. 번역의 언급이지만 연구실 신학의 번역이 아니라 목회현장을 염두에 둔 번역이라면, “οὗτός, 이가(이 분이) 누구시기에...”로 번역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포세이돈을 제압하여 바다를 평정하신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영어역들은 “Who then is this....?”로 번역하였다.

참고문헌

- 강일상.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깁런드, D. E. 『NIV 적용주석 마가복음』. 채천석, 정일오 공역. 서울: 솔로몬, 2011.
- 글로빈, S. M. 엘리야데, G. 캠벨. 『세계 신화이야기』. 이기숙, 김이섭 공역. 서울: 까치, 2001.
- 권종선. “마가복음의 서사적 기독교론.” 『복음과실천』 27 (2000), 65-101.
- 글리히, R. 『마가복음 1-8:26』. WBC 34-상.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1.
- 그닐카, J. 『마르코복음』. 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6.
- 그리말, P. 『그리스 로마신화』. 최애리 외 3인 공역. 서울: 열린책들, 2004.
- 김득중. 『복음서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1985.
- _____. 『복음서의 이적해석』. 서울: 컨콜디아사, 1999.
- 김라옥 편저. 『신화의 이해』. 서울: 학이당, 2000.
- 김선욱. “마가복음에 나온 바다의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미.” 『신약연구』 16:2 (2017), 38-69.
- 김성대 편저. 『그리스 로마신화』. 서울: 삼양미디어, 2012.
- 김창선. 『유대교와 헬레니즘: 신약성서 배경연구』. 서울: 한국성서학, 2011.
- 김태성. “마가복음의 이방성-이적설화를 중심으로.” 『대학과선교』 20 (2011), 153-179.
- 뒤프레, L. K.,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권수경 역. 서울: 성광사, 1996.
- 디엘, P. 『그리스신화의 상징성: 인간의 욕망과 그 변형』. 안용철 편역. 서울: 공동체, 1994.
- 레이니, A. F., R. S. 나들. 『성경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강성열 역. 서울: 이레서원, 2013.
- 로제, E. 『신약성서배경사』. 박창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2.
- 마커스, J. 『앵커 바이블 마가복음 I . 1장-8장』. 류호영, 장성민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CLC, 2016.
- 민주홍. “로마제국의 경제적 통치방식과 마가공동체의 정황.” 『신약논단』 21:1 (2014), 59-90.

- 박수암. “마가의 기독교론.” 『교회와신학』 20 (1988), 74-102.
- _____. “마가복음에서의 반-성전 주제.” 『교회와신학』 28 (1996), 164-190.
- 박윤만. “예수의 두 얼굴-마가복음의 고기독론 연구.” 『신약연구』 16:1 (2017), 35-69.
- 박찬웅.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교와 원시 기독교-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논의.” 『신약논단』 15:4 (2008), 861-894.
- 박태식. “마가복음의 오클로스.” 『신약논단』 2 (1996), 42-63.
- 반덕진. 『신화로 보는 세상: 그리스 신화와 문학』. 서울: 신광출판사, 2000.
- 블롬버그, C. L. 『예수와 복음서』. 김경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 서용원. “마가의 기독교론에 나타난 생존의 모티브 연구.” 『신약논단』 8:3,4 (2001), 1-14.
- _____.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 연구.” 『신약논단』 9:1 (2002), 1-38.
- 서중석. “마가복음서의 예수-대결적 국외자.” 『현대와신학』 25 (2000), 26-49.
- 석원식. “지리적 확장을 통한 마가의 이방선교: 막5:1-20과 7:24-30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11:3 (2004), 629-648.
- 성서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성서백과대사전』.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 성종현. “오클로스: 예수를 따르던 무리.” 『기독교사상』 33:8 (1989), 216-222.
- 소기천.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방인 선교.” 『장신논단』 16 (2000), 175-192.
- 슈나켄부르크, R.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김병학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9.
- 스탠턴, G. 『복음서와 예수』. 김동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스푹, J. S. 『만들어진 예수 참사람 예수: 인간의 가슴에 신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계준 역.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
- 아침나무.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세계의 신화』. 서울: 삼양미디어, 2014.
- 아하로니, Y. 외 4인. 『아가페 카르타 성서지도』. 신대현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2013.
- 안진태. 『신화학 강의』. 서울: 열린책들, 2001.

- 에반스, C. A. 『마가복음 8:27-16:20』. WBC 34-하.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2.
- 왕대일. “유대신앙과 헬라문화, 그 만남과 갈등-희생제물의 경우.” *Canon&Culture* 3:1(2009), 67-95.
- 요시다, A. 외 11인.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신화 101』. 김수진 역. 서울: 아세아미디어, 2002.
- 웬함, G. J. 『창세기 1-15』. WBC 1. 박영호 역. 서울: 솔로몬, 2001.
- 유태엽. “마가공동체의 삶의 정황에 대한 물음.” 『신학과세계』 77 (2013), 32-64.
- _____. “이적설화의 역사성과 기능에 관한 소고-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신학과세계』 90 (2017), 7-44.
- 이영호. “마가복음 해석에 대한 연구.” 『교수논총』 8 (1996), 117-140.
- 이진경. “마가복음 1:1에 나타난 두 개의 기독교론 칭호 연구-두 세계를 위한 두 개의 기독교론 칭호.” 『신약논단』 20:2 (2013), 267-307.
- 이진성. 『그리스신화의 이해』. 개정판. 서울: 아카넷, 2010.
- 이환진. “‘마르헤페트’를 ‘신들의 싸움’ 신화로 읽기: 하느님의 바람이 물 위에 내리꽂다.” 『성경원문연구』 9 (2001), 125-141.
- 조병수. “마가복음의 오컬로스에 대한 고찰.” 『신약신학저널』 2:1(2001), 24-46.
- 조태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기적이야기를 통해 본 예수 운동.” 『기독교사상』 39:4 (1995), 112-131.
- 천사무엘. 『신구약 중간시대의 성서해석: 예수 시대 전후의 유대교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최문홍. “공관복음서의 ‘이적’의 신학적 의미에 대한 고찰.” 『교수논총』 6 (1995), 143-160.
- 캠벨, J. 『세계의 영웅신화』. 이윤기 역. 서울: 대원사, 1991.
- 타이센, G., A. 메르츠. 『역사적 예수』. 손성현 역. 서울: 다산글방, 2002.
- 폴마이어, J. N.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 실종된 예수를 되찾는 길』. 한성수 역.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12.
- 프란스, R. T. 『NIGTC 마가복음』. 이종만 외 2인 공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프리만, P. 『지금 시작하는 그리스 로마신화』. 공민희 역. 파주: 21세기북스, 2014.
- 해리스, S. L., G. 플라츠너. 『신화의 미로찾기 I』. 이영순 역. 서울: 동인, 2001.
- 해밀턴, E. 『그리스 로마신화』. 서미석 역. 고양: 현대지성사, 2003.
- 헤이네스, S., S. 메켄지.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김은규, 김수남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헝겔, M. “유대교와 헬레니즘.” 박정수 역. 「신약논단」 17:3 (2010), 829-862.
- _____. 『유대교와 헬레니즘 3: 기원전 2세기 중반까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만남 연구』. 박정수 역. 파주: 나남, 2012.
- 홍사석. 『살아있는 지중해 신화와 전설: 그리스 신과 영웅들』. 서울: 해안, 1998.
- Achtemeier, P.J. “Person and Deed: Jesus and the Storm-Tossed Sea.” *Int* 16 (1962), 169-176.
- _____. “Gospel Miracle Tradition and the Divine Man.” *Int* 26 (1972), 174-197.
- _____. “The Origin and Function of the pre-Markan Miracle Catenae.” *JBL* 91 (1972), 198-221.
- Blackburn, B. *Theios Aner and the Markan Miracle Traditions: A Critique of the Theios Aner Concept as an Interpretative Background of the Miracle Traditions used by Mark*.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91.
- Broadhead, E. K. *Teaching with Authority: Miracles and Christology in the Gospel of Mark*. Sheffield: JSOT Press, 1992.
- Collins, A. Y. “Mark and His Readers: The Son of God among Jews.” *HTR* 92 (1999), 393-408.
- _____. “Mark and His Readers: The Son of God among Greeks and Romans.” *HTR* 93 (2000), 85-100.
- Dewey, J. “The Survival of Mark’s Gospel: a good story.” *JBL* 123:3 (2004),

495-507.

- Donahue, J. R., D. J. Harrington. *The Gospel of Mark*. Sacra Pagina Series. vol.2.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2.
- Dwyer, T. *The Motif of Wonder in the Gospel of Mark*.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Eve, E. *The Jewish Context of Jesus' Miracles*. London, 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 Heil, J. P. *The Gospel of Mark as Model for Action. A Reader-Response Commentary*. Eugene, Or.: Wipf & Stock Publishers, 2001.
- Iersel, B. M. F. van. *Mark*. A Reader-Response commentary. W.H. Bisscheroux, tra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Kee, H. C. "Aretalogy and Gospel." *JBL* 92:3 (1973), 402-422.
- Kingsbury, J. D. "The 'Divine Man' as the key to Mark's Christology-The End of an Era." *Int* 35 (1981), 243-257.
- Lane, W. L.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1974.
- Leander, H. *Discourses of Empire: The Gospel of Mark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Ata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3.
- Malbon, E. S. "The Jesus of Mark and the Sea of Galilee." *JBL* 103:3 (1984), 363-377.
- McGruden, K. "Compassionate Soteriology in Hebrews, 1Peter and the Gospel of Mark." *BR* 52 (2007), 41-56.
- Oyen, G. V. "Markan Miracle Stories in Historical Jesus Research, Redaction Criticism and Narrative Analysis." M. Labahn, B. J. L. Peerbolte, eds. *Wonders Never Cease: The Purpose of Narrative Miracle in The New Testament and Its Religious Environment*. London: New York: T&T Clark, 2006.
- Smith, M. "Prolegomena, to a Discussion of Aretalogies, Divine Men, the Gospels and Jesus." *JBL* 90 (1971), 174-199.
- Stein, R. H. *Mark*.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 Theissen, G., *The Miracle Stories of the Early Christian Tradition*. F. McDonagh, trans. J. Riches, edi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 Winn, A. "Resisting Honor: The Markan Secrecy Motif and Roman Political Ideology." *JBL* 133:3 (2014), 583-601.

<초록>

마가복음의 바다평정 이야기(4:35~41)에 대한 그리스-로마적 이해

박경은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마가복음의 바다평정 이야기를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읽을 때 어떤 이해가 가능한지를 보이는 것에 있다. 구약성서 관점에 의하면 바다는 악의 세력이나 악령의 거주지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거친 바다를 평정하신 예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바다는 포세이돈의 지배영역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는 것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제압하셨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바다평정 이야기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설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글은 그리스-로마적 관점에서 바다의 지배자를 전제하고 본문을 읽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해석이 간과한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41b-“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저자가 이방인들을 상대로 예수를 전하며 가르쳤던 것처럼 한국인을 상대로 예수를 전하며 가르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이 글을 통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Understanding of the Story of Jesus calming the Storm(Mk 4:35~41) in Mark's Gospel Through the Eyes of Greco-Roman Culture

Dr. Kyong-Eun Park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esent how we can understand the story of Jesus calming the storm in Mark's gospel through the eyes of Greco-Roman culture. To the writers of the Old Testament, the sea was seen as the forces of evil or the dwelling place of evil spirits. Calming the sea storm is what only God could do. Therefore, Jesus could be described as God. To the Greco-Romans, the sea was understood as the area dominated by Poseidon, the god of the sea. Therefore, Jesus' calming the rough sea could be explained in the sense that Jesus overcame Poseidon.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rarely dealt with the passage using this perspective. I have read this text with the assumption that there was a ruler of the sea from the Greco-Roman viewpoint. As a result, it is now possible to explain what had been overlooked so far. This paper highlights the answer to 41b -"Who is this? Even the wind and the waves obey him!"- summarizing in two ways. Consequently, this paper could help Christian leaders who serve churches propagate and instruct who Jesus is to Christians as well as non-Christians just as the author of Mark's gospel had done to the Gentiles.